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[2020 고양시 하천 친구들]

수생곤충편



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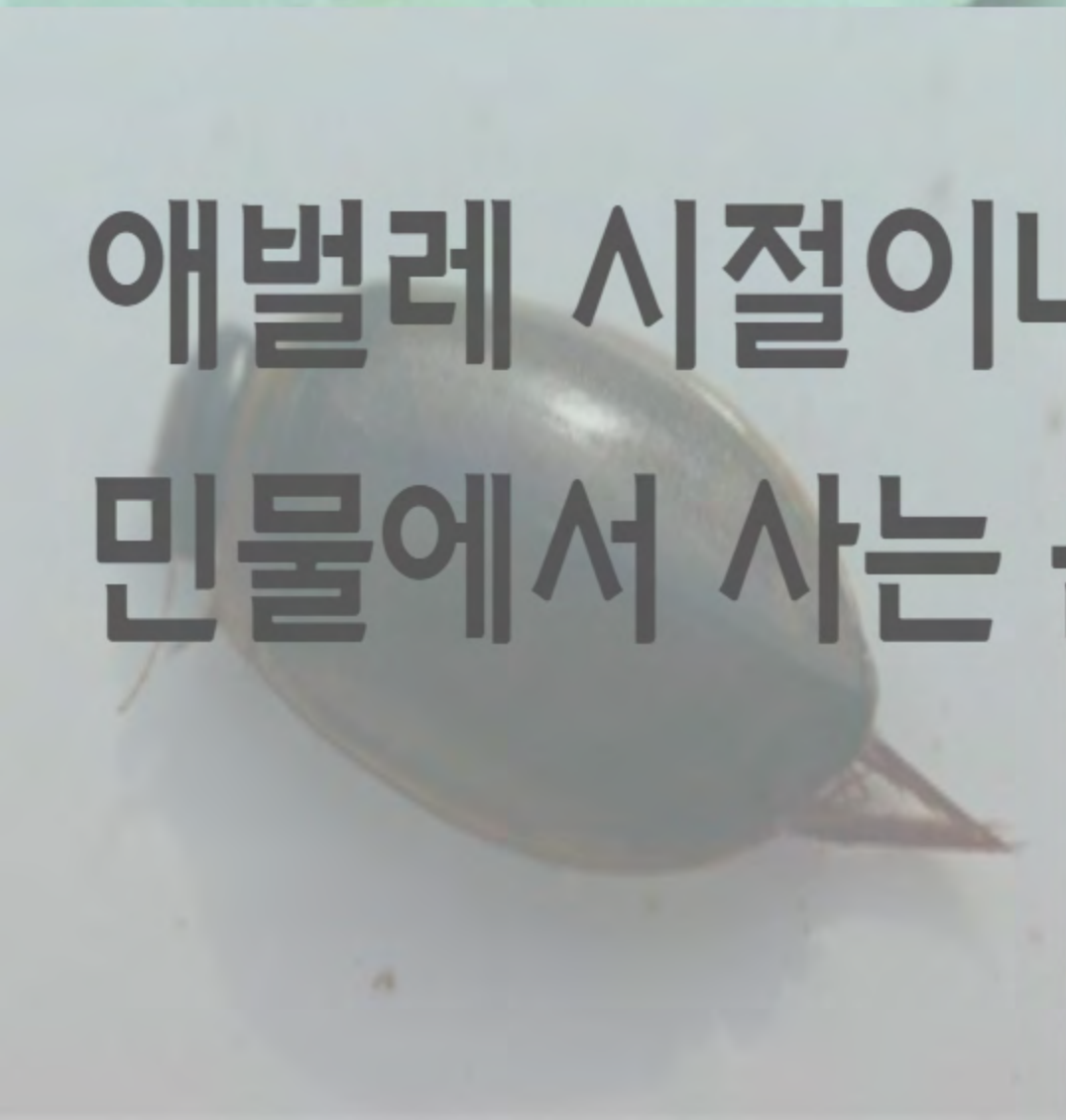
고양시 하천의

수생곤충은 무엇이 있을까요??





수생곤충이란??



애벌레 시절이나 일생 전부를
민물에서 사는 곤충



검은물잠자리

반수서곤충

- 물가의 숲, 유충 계곡이나 평지의 물 흐름이 약한 하천 가장자리의 수생식물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.
- 수컷의 가슴과 배는 청록색이며 금속 광택이 나며, 암컷의 가슴과 배는 흑갈색으로 광택은 없다.

* 반수서곤충 : 유충시절을 물에서 보내는 곤충



방울실잠자리

반수서곤충

- 구릉지와 저지대 습지, 연못, 저수지 등의 밑부분 수생식물 근처에 서식한다.
- 수컷의 다리에 있는 방울은 반사경처럼 생겨 침입자를 경계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, 방울에 가시가 달려 있어 다른 수컷과의 싸움에서 무기로도 이용된다. 또한 암컷을 만나면 이 방울을 세계 흔들어 유인한다.



꼬마줄 물방개 진수서곤충

- 웅덩이, 연못, 인공호 등 정수역에 서식하지만 평지하천 등 유수역의 수변부나 수중보 상·하류의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되는 구간에서도 흔히 발견된다.
- 기관으로 숨을 쉬지만 꼬리에 공기방울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.
-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으며, 죽은 동물을 뜯어 먹기도 한다.

* 진수서곤충 : 평생 물에서 사는 곤충



요시마짚기갈따구

진수서곤충

- 진흙, 연못 등의 물속이나 썩어가는 식물체에 사는 곤충이다.
- 지역의 환경조건이나 오염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동물이다.
- 오염수에 있는 유기물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먹어 자연정화에 기여하기도 한다.



물사리 진수서곤충

- 논이나 하천, 저수지 등 잔잔한 물에서 서식한다.
- 작은 물고기와 올챙이, 개구리는 물론 뱀이나 작은 거북이, 가재 등을 사냥하기도 한다.
- 배 끝에는 숨관이 있는데, 이 숨관을 물 밖에 내놓고 숨을 쉰다.
- 최근에는 수질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.



개미-개미

진수서곤충

- 저수지나 논, 연못 등 물가에서 서식한다.
- 유충일때는 아가미 호흡,
성충은 숨구멍이 배끝에 있어서 숨관을 물밖으로 내밀어서 숨을 쉰다.
- 헤엄을 잘 못쳐서 물속에서 걸어다닌다.
- 보통 물풀 사이에서 잠복하다가 먹잇감이 다가오면 앞다리로 덮쳐서 체액을 빨며, 올챙이와 작은 물고기, 수생곤충 등을 먹는다.

모니터링 참여

고양자연생태연구회
더불어에코밴드
어린이식물연구회
에코코리아
하천생태동아리

2020년 고양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.



고양하천네트워크